

# “한국은 부자 나라”...트럼프, 또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방어하느냐” 철수 가능성 시사 한미 협상 내년말 종료...트럼프 승리엔 새 협상안 요구 관측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

고 말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이러나 안보 부담 증가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000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라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you're on your own)”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유세 때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공갈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럽(지원)이 갈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

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을 각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중요하다는 대만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 “공산주의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타임지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방어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황금연휴 즐겨요 황금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1일 홍콩 로우 국경통제소에서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 대학에 다시 ‘반전’ 물결 ‘정답없는 시험지’ 받은 바이든

### 반유대주의 논란 속 시위 격화 젊은층·중도층 표심 타격 예상 68년 베트남전 방관...지금은?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가자전쟁 반대 시위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점차 어려운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반(反)유대주의는 경계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시위가 격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 받고 있다.

어떤 입장을 택하든 그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층 유권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 요인이다.

특히 이번 미 대학가의 가자전쟁 반대 시위는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여러모로 닮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처지는 너무도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미 대학가 시위를 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그의 젊은 시절 시위를 대하는 태도와 무관치 않다.

30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68년 시러큐스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시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젊은 시절부터 제도주의자였던 그는 길거리보다는 시스템 내부에서 변화를 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2007년 회고록에서 로스쿨 대학 시절 학교 건물을 점거 중인 반전시위 운동 단체를 보며 “저 멍청한 놈들(assholes) 좀 봐”라고

말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전쟁을 큰 도덕적 문제로 바라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비극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56년이 흐른 지금 그는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약 2주 전 컬럼비아대에서 재점화한 가자전쟁 반대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졌고, 컬럼비아대 시위 학생들은 50여년 전 선배들이 그랬듯 해밀턴홀을 점거했다.

반전 주장이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시위가 폭력 양상을 보이고 학생 체포와 정학 등의 문제로 옮겨가자, 미 정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고, 민주당 안에서도 시위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논란에서 비켜있으려 했으나 신중 노선을 밟아왔다.

컬럼비아대 시위 학생들의 건물 점거가 있었던 이날도 그는 대학가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밤 바이든 대통령은 5월을 ‘유대인 미국 문화유산의 달’을 선포하고 ‘반유대주의의 급증’을 비판하기도 했다.

NYT는 이번 시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두 가지 정치적 위험을 안겨준다고 분석했다.

핵심 유권자인 젊은 층에서 민주당 강경파와의 불화를 키우고, 국내의 혼란을 주도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공화당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합뉴스

## 유럽 외교관들, 팔 서안지구서 반전 시위대에 봉변

### 외교차량에 돌 던져 창문 깨져

3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한 박물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관 회의가 가자전쟁 반대를 외치는 현지 학생들의 시위로 중단됐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서안지구 주재 EU 외교관들은 라말라 인근 비르자이트에 있는 국립 팔레스타인 박물관에서 팔레스타인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 중 밖에 군중이 나타나 외교관들에게 그릇

을 던지라고 말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아 결국 해산했다.

한 외교관은 로이터에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외교관들에게 심각한 위협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는 외교관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이 군중에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창문이 깨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또다른 영상에선 박물관을 서둘러 떠나는 이탈리아 총영사 뒤로 팔레스타인인 시위대가 뒤쫓는 모습이 담겼다.

비르자이트 대학생 알리 카에드는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과 공세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라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EU 외교관들에게 떠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한 소식통은 시위대가 독일 외교관을 찾고 있었다고 AFP에 전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학생들은 페이스북에 가자전쟁 중 이스라엘을 지원한 독일 대표부에 항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3(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